한국여성심리연구회지 : 창간호
Korean Journal of Women's Psychology
1996. Vol.1, 43-62.

성고정관념의 감소 : 재, 탈범주화의 효과

이 해 경 · 이 수 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성고정관념의 감소와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재,탈범주화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은 성고정관념의 감소는 조망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들을 먼저 성에 따라 범주화한 후, 각각 범주화, 탈범주화, 및 재범주화처치를 가하였다. 범주화조건은 성범주를 특출하게 하여 남여 성범주에 자신의 정체를 동일시하도록 조작한 조건이다. 따라서 내집단에서 추구하는 특정한 단일가치를 판단의 준거로 삼아 남여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고정관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반면에 남여범주를 하나의 단일집단으로 묶어 범주경계를 재설정한 조건이나, 범주경계를 해체하여 개인화시킨 탈범주화조건에서는 성범주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탈범주화처치는 상대집단의 준거가치를 수용하여 다원준거로 남여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고정관념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즉 범주화처치는 조망의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고정관념이 증가되는 반면에 재,탈범주화처치에서는 조망의 확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고정관념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이 예언들이 모두 지지되었다.

I. 서 론

흔히 사람들은 남자는 용감해야 하고 여성은 부드러워야 한다와 같은 일련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져야 할 특성에 관한 일련의 신념들을 성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이라고 한다. 이런 성고정관념에는 공통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기능적인 특성(자기주장적이고, 성취지향적인)을 갖는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친화적인 특성(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따뜻하고, 양육적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Bem,1974: Block, 1973,; Broverman, Vogel, Spence & Helmreich, 1978; 정진경, 1987).

성고정관념과 성차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고정관념은 여러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들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최근 Eagly와 Mladinic(1994)는 성고정관념과 태도, 능력평가에 관한 개관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인 판단에서 여성을 남성들보다 더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으로 평가하거나(Goldberg, 1968; Hyder, 1985: Williams, 1987), 개인적 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더 열등하거나(Ruble & Ruble, 1982), 사회적인 직업 수행 능력에 있어서 더 열등한 것으로 평가(Greenglass, 1982: Matin, 1987)됨을 보고하였다. 여성에 대한 이

와 유사한 평가는 직업에 관한 성고정관념연구에서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성고정관념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지위상승을 저해하는 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Shinar, 1975; 조순과 조순경, 1994).

이에 오래전부터 많은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성고정관념의 원인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나의 연구주제로 다루어 왔다. 특히 성고정관념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한 요인이라면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성고정관념은 여성들은 모두 친화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는 반면에 남성들은 모두 기능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일반화하여 지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든 여성들과 남성들은 각각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두 집단의 특성을 서로 다른 것으로 지각하게 되는가? Krueger와 Rothbart(1990)는 고정관념의 형성에는 범주화 과정(categorization process)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범주화하였을 때 고정관념적 판단이 왜 증가하는가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은 Tajfel (1969)의 강조이론(accentuation theory)에서 나타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대상을 즉 흑인과 백인, 혹은 남자와 여자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집단범주내의 대상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동화(assimilatin)가 일어나는 반면에 범주간에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강조되는 대비(contrast)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현상은 Asch(1951)의 선분실험에서도 잘 나타난다. Asch는 피험자들에게 6개의 선분을 주고 그 길이를 추정하게 하였다. 그중 3개의 선분은 A집단으로,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B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실험결과에서 피험자들은 A범주와 B범주, 각 범주내에 속한 선분들의 길이는 더 유사한 것으로, 두 범주간에는 그 차이를 크게 추정하였다. 이 두 연구결과에서 볼 때 범주화는 범주내의 대상에 대해서는 동질적인 특성으로, 다른 범주내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지각하는 지각적 오류를 낳을 수 있다.

Asch의 연구이후, 대인지각에서도 범주화의 효과에 관해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을 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집단내의 성원들에 대해서는 더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가고 지각하게 되거나(Judd & Park, 1988; Linville, Fisher & Salovey, 1989), 범주화된 두 집단간 차이를 과장하여 지각하거나(Rothbart & Taylor,1990), 같은 범주내에 속한 개인들이 그 범주에 맞는 속성을 더 갖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ord, 1959). 또한 Hamilton과 Gillford(1976)는 범주화가 '착각적 상관'(Illusary correlation) 즉, 특정 범주에 속한 개인의 행동의 발생빈도를 과다추정하여 과잉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예를 들어, 여성들은 모두 친화적인 특성을 보인다. 혹은 남성들은 모두 기능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남여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발생하는 이유를 범주화의 효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남여를 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남여

집단간의 차이는 강조되는 반면에 남여집단내에서는 더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것으로 과잉일반화하는 고정관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범주화가 고정관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남여로 범주화하여 지각하게 되는가? 범주특성에 근거해 지각하는 원인에 관한 설명은 인간을 '인지적 절약가'로 보는 견해와 '지각적 선택'견해로 크게 나뉘어진다. 첫째, '인지적 절약가(Cognitive miser)'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의 인지는 정보처리용량의 한계로 인해 개인의 대한 정보를 가능한 단순한 도식으로 처리할려고 한다. 따라서 개인의 세세한 정보보다는 도식 혹은 범주에 근거해 정보를 처리할려는 경향이 고정관념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보았다(Fiske & Neuberg, 1990; Brewer, 1988; Hamilton & Trolier, 1986). 둘째, 지각적 선택(Perceptual selectivity)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지각체계는 정보를 유의미하게 처리할려는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범주화를 하게 되면 특정 범주화 관련된 정보를 유의미하게 선택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Neisser, 1987; Roach, 1978; Medin, 1988).

그렇다면 이런 어떻게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앞의 많은 연구들에서 고정관념이 범주화의 산물이라고 본다. 고정관념이 범주화의 산물이라면 반대로 범주를 약화시키거나 없앨 때에는 상대적으로 고정관념적 판단이 감소될 것이다. 많은 집단간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 집단간 상호 의존성을 조작(Aronson, Blaney, Stephen, Sikes, & Snap, 1978; Worchel, 1979; Slavin, 1985)하게 되면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집단간 상호의존성을 조작하는 방법은 크게 상위의 공동목표, 공동운명을 느끼도록 상호작용을 조작하는 방법과, 상호 두개의 대립되는 집단멤버쉽을 갖도록 하는 교차범주방법, 개별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별화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Gaertner 등, 1989). 이들 방법은 공통적으로 범주의 경계를 바꾸거나 없애는 방법들이다.

Gaertner 등(1989)은 범주화에서 오는 집단간 편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별하여 전자의 방법을 재범주화전략으로, 후자의 방법을 탈범주화전략으로 명명하고 이를 직접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이들은 집단범주의식을 강조하는 조건과 상대적으로 범주의식을 약화시키는 조건(재범주화와 탈범주화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3조건 모두 6명의 피험자들을 3명씩 집단을 나누어 범주의식을 갖게 하여 3명씩 과제수행을 경쟁적으로 하게 하여 하위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런 후 범주화조건에서는 이런 범주의식을 계속 유지하는 처치를 하였다. 반면에 재범주화(recategorization)조건에서는 두개의 하위범주를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재범주화한 뒤, 과제수행에 있어서 6명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하게 하였고, 탈범주화(decategorization)조건에서는 6명이 모두 개인별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범주의식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 연구결과에서 범주화조건에 비해 재,탈범주화조건에서는 내집단보다 외집단을 더 비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집단간 편파가 감소됨을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실제 재,탈범주처치가 범주화에서 올 수 있는 집단간 편파를 줄일수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직접적으로 재,탈범주화 처치가 고정관념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재,탈범주화 처치가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에 미치는 재,탈범주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Gaertner 등의 연구를 토대로 먼저 남여를 집단으로 범주화한 후, 범주의식을 강조하는 범주화조건과 상대적으로 범주의식을 약화시키는 재,탈범주화 조건으로 조작하고자 하였다. 가정에 따르면 범주화에 비해 재,탈범주화조건에서는 성고정관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은 재,탈범주화처치가 어떻게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게 되는가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한 설명으로 Gaertner 등(1989)은 재,탈범주화전략이 내외집단 성원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으로 주장하였다. 즉, 재범주화는 외집단 성원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키고, 탈범주화는 내집단 성원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편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재범주화전략은 외집단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재범주화가 탈범주화에 비해 편파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재,탈범주화에서 오는 내외집단성원들의 매력정도를 실제 검증하진 못하였다. 이들의 설명과 달리 Tajfel(1969), Tajfel과 Turner(1979)는 상호의존성의 조작을 하게 되면 두 집단간의 수용(acceptance)이 증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설명은 집단간에 일어나는 수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측정하진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탈범주화의 효과가 상대집단의 준거가치(기능성과 친화성)의 수용에서 비롯된 효과라고 가정하였다. 이해경과 이수원(1994), 서미와 이수원(1995)는 Gaertner 등(1989)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주화, 재범주화, 탈범주화 처치를 하였을 때 범주화에 비해 재, 탈범주화가 내외집단의 판단에 있어서 준거가치의 다원화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들은 준거가치의 다원화정도를 준거차원변별값으로 분석한 결과, 범주화집단에서는 기능 혹은 친화, 어느 한 단일준거가치를 더 크게 갖는 반면에 재,탈범주화집단에서는 기능과 친화, 두 준거가치 모두를 비슷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범주화에 비해 재,탈범주화가 상대집단의 준거가치를 수용하게 하고 따라서 내외집단을 판단하는 판단준거가 다원화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보면 범주화가 특정한 준거가치를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범주화가 왜 판단준거를 단일화시키는가? 이에 관한 한 설명은 Tajfel과 Turner(1985)의 사회적 정체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집단범주가 특출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성원의 일원으로서 동일시하게 되고 따라서 내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곧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된다고 한다.

사회적 정체이론에서 볼 때 남여를 내외집단으로 성에 따라 범주화할 경우에는 남여집단범주가 특출하므로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개인의 정체를 동일시하게 된다. 즉 집단의 성원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회적 정체(예, 나는 여자이다 혹은 나는 남자이다)를 갖게 되면 개인의 판단준거는 이제 내집단에서 추구하는 특정

준거가치(기능가치 혹은 친화가치)가 개인의 판단준거가 된다. 따라서 특정한 단일준거가치가 남여집단을 판단하는 판단준거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재탈범주화처치는 남여집단범주를 하나의 단일범주로 묶거나 혹은 범주자체를 깨뜨리는 전략으로 상대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수용하게 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상대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상호수용한 다원준거가 남여집단을 판단하는 준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여를 성에 따라 범주화하였을 때 범주화조건에 비해 재,탈범주화처치가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성고정관념이 감소되는 이유를 재,탈범주화가 상대집단이 추구하는 준거가치의 수용에서 나타나는 판단준거의 다원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피험자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부생 168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은 남여 각각 4명씩 8명이 하나의 실험집단을 구성한 후, 세가지 처치조건(범주화조건, 탈범주화조건, 재범주화조건)에 무선적으로 각각 56명씩 할당되었다.

독립변인 조작

독립변인의 조작은 두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성범주화 처치를 가한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피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범주화, 재범주화 및 탈범주화 처치를 가한 단계이다.

1) 성범주화 처치

남여 각각 4명씩 8명이 실험대기장소에 모이면,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집단의사결정기술'을 알아보려는 실험이라고 소개한 뒤, 앞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 조별토론이 수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은 남여 4명씩 2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남여집단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즉 남자는 파란색 이름표(가,나,다, 라가 적힌 이름표)중에서 여자는 주황색 이름표(A, B, C, D가 적힌 이름표)중에서 하나를 선택,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여 하위집단으로 나누었다. 하위집단으로 조편성이 끝나면 대형칸막이에 의해 공간이 나뉘어진 실험실 양편에 있는 테이블에 자신의 명찰을 찾아 앉게 하였다. 이어서 피험자들에게 토론주제인 '남여의 직업적 역할분배 문제'에 관한 두개의 상반된 입장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입장 1)..... 오늘날 아무리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지만 신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직업에서는 남녀 평등이 있을 수 없다. 동물간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듯이, 인간들간에도 유전전으로 결정지워진 특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발달심리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은 기본적인 유전 구조에서 부터 출생후, 키, 몸무게의 성장 비율과 속도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지적발달과 신체적인 발달에서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욱 분명한 차이는 남녀간의 신체구조상의 차이이다. 남성은 여성을 대신하여 출산이나 육아를 할수 없으며, 여성은 남성처럼 힘든 물건을 옮길 만큼 강인한 근육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두뇌반구의 특성상, 여성은 대부분 좌반구형이 많기 때문에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반면에 남성은 대부분 우반구형이 많기 때문에 과묵하며 수학적인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였다.....또한 남녀는 성격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감각적이고, 타인과 친화적인 반면, 남성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자기 주장적인 면이 강하다. 이런 특성들의 차이는 선천적인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 물론 후천적으로 학습이나 훈련으로 선천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순 있겠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남녀의 선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역할과 직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장 2)...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남성보다 항상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고정관념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런 고정관념이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를 박탈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여권 신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20세기 초만 해도 여성들은 너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까지 생각되었던 적이 있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여성들은 너무나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으며, 버스 운전사, 법률가, 의사, 회사 경영자 등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은 정계--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영국의 대처 수상 등---에서 뿐만 아니라 증권 분석가, 외과의사, 트럭 운전사, 소방수, 경찰관, 우주인.. 등 예전에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많은 분야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 아동간의 차이는 행동수준에서의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곤, 인지적, 도덕적, 성격 특성에서의 성차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여성들은 '유전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고, 저것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결국 사회적 직업이나 역할에서의 남녀의 차이를 주장한다면 스스로 바보임을 자인하는 것일 것이다. 남녀의 기질적 차이는 후천적인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 충분히 극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여성의 진출을 막는 핑계가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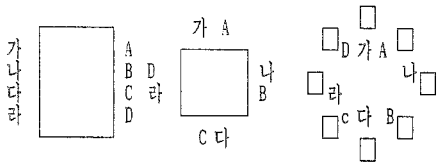
시나리오를 읽은 뒤, 오늘날 사회적 잇슈가 되고 있는 남녀가 서로 다른 직업이나 역할을 분배받게 된 이유(신체적인 구조차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남녀의 능력차이, 여성의 주체성 부족, 사회제도상의 모순, 전통적인 인습)가 제시되고 조별 토론을 거쳐 공동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기존에 갖고 있던 남여집단정체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답안지 상단에 자신의 조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 기입하도록 하였다.

2) 범주화, 탈범주화, 재범주화 처치

이 단계에서는 성범주화처치에서 수행한 조별답안을 상호토론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테이블을 옮겨 앉아야 했다. 이 단계에서는 피험자들은 세가지 실험처치조건(범주화, 탈범주화, 재범주화)으로 나뉘어졌다. 범주화 조건은 남여 성범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처치한 반면,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남여집단 성원 8명이 한개의 단일집단으로 재범주화 되었으며, 탈범

주화 조건에서는 범주경계를 해체하여 개인화시켜 탈범주화되었다. 이런 조작을 위하여 선행연구(Gaertner 등, 1989)에 기초하여 집단구성원들의 상호작용시 세가지 유형의 실험조작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첫째, 처치조건별 집단구성원의 표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좌석배치를 상이하게 조작하였다.



<범주화 조건> <재범주화 조건> <탈범주화 조건>

그림 1. 처치조건별 좌석배치 형태(가,나,다,라는 여성 구성원을, A,B,C,D는 남자구성원을 나타냄

둘째, 처치조건별 집단정체감을 상이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범주화 조건에서는 4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그 조를 대표하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재범주화조건에서는 8명이 1개조로 재편성되어 공동조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탈범주화조건에서는 각 피험자들에게 이전에 지었던 집단명 대신에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별명을 지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제해결책을 제안하는데 있어서도 각 피험자들에게 이전에 지었던 집단명 대신에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별명을 지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제해결책을 제안하는데 있어서도 범주화 조건에서는 남여집단별로 4명이 합의한 조별 해결책을 결정해 상대집단에게 제시하게 한 반면,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8명의 조원이 합의한 단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했으며,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개인별 해결책을 다른 7명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세째, 처치조건별로 참여자들간의 상호의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범주화조건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4인 집단들 중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집단일수록 높은 학점카드를 받게 된다고 하여(동일한 점수의 4장) 집단내에서는 협동이, 두 집단간에서는 경쟁이 되도록 하였다. 반면 재범주화 조건에서는 집단해결책이 다른 8인 집단 보다 효과적일수록 A-D까지의 학점 중 높은 학점카드(동일한 점수의 8장)를 지급한다고 하여 집단성원들간에 서로 협조적이 되도록 하였다. 탈개인화 조건에서는 개인별 문제해결책이 평가된다고 하였다.

종속변인 측정

1. 독립변인조작검증문항

최종단계에서 8명의 상호작용에 대해 피험자들이 어떤 집단표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8명이 같은 주제의 과제를 풀면서 하나의 집단 또는 두 집단, 또는 별개의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확신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의 집단, 두 집단, 혹은 별개의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느꼈다'라는 진술 각각에 대해 피험자들이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7점 척도상(1점 :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 - 7점 : 매우 확신한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2. 태도변화

직업역할분배에 관한 신념에서의 태도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에 이에 관

한 태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직업역할분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남여가 직업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직업역할공정성 여부)'와 '직업역할분배에 대한 신념들'을 물음하였다. 직업역할분배에 대한 신념에서는 '여자도 신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들을 남자들처럼 잘 할수 있다(신체적인 능력)', '결혼한 남여가 가사노동의 분담을 전통적인 역할대로 한다해도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권리는 가질 수 있다(전통적 역할분배)',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이 많이 향상되었다(정치,경제적 세력)','직업역할에서의 남여의 역할을 정당화시킬만한 선천적인 성차가 있다(선천적인 성차)'의 신념문항 각각에 대해 피험자들이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7점 척도상(1점:전혀 확신하지 못한다 - 7점:매우 확신한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3. 성고정관념 측정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고정관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성고정관념은 남자를 여자보다 기능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여자를 남자보다 친화적이라고 보는 정도를 말한다. 성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평소 남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과 "평소 여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물음에 대해 정진경(1987)이 남성특성, 여성특성으로 추출한 두 요인, 즉 기능성(agency), 친화성(Communal)가치에 따라 이들을 대표하는 신념들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요인분석(표 1)의 결과에 따라 기능성 차원과 친화성 차원에서 각각 5개씩, 모두 10개가 의미미분척도 구성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기능성 차원에 해당하는 신념으로는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능동적이다-수동적이다, 강인하다-연약하다, 대범하다-소심하다, 자신감 있다-자신감 없다였다. 친화성차원에 해당하는 신념문항은 침착하다-덜렁댄다, 친화적이다-경쟁적이다, 상냥하다-무뚝뚝하다, 섬세하다-둔하다, 깔끔하다-지저분하다였다. 이들 10개의 의미미분척도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은 7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평정순서는 피험자간에서 무선적이 되도록 하였다.

표 1. 남여 특성 형용사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문항	남자는		여자는	
	요인1 (3.31)*	요인2 (2.35)	요인1 (2.95)	요인2 (2.63)
독립적이다	.7561	-.2031	.7896	-.0302
능동적이다	.7846	-.0979	.7681	-.0141
강인하다	.7946	.1953	.6795	-.2547
대범하다	.7910	-.0607	.7123	.0659
자신감있다	.8223	-.0545	.7692	.1869
침착하다	-.0714	.6729	-.0564	.6350
친화적이다	.1277	.5121	.0004	.5720
상냥하다	-.0267	.7375	-.0458	.7822
섬세하다	-.0816	.8042	-.0459	.8588
깔끔하다	.2701	.6981	-.0568	.7835

( )*는 Eigenvalue임

인상평가

전체 8인의 남녀집단구성원들에 대한 특성판단은 정진경(1987)이 남성특성, 여성특성으로 추출한 두 요인, 즉 기능성(agency), 친화성(Communal)

가치에 따라 이들을 대표하는 신념들로 구성된 척도들로 성고정관념에서 측정된 10개의 문항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10개의 의미미분척도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자신을 포함한 8명의 남여집단 성원에 대한 인상을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은 7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평정 순서는 피험자간에서 무선적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이들 인상평정점수를 기초로 피험자들의 준거차원변별값과 준거가치다원성값, 평가값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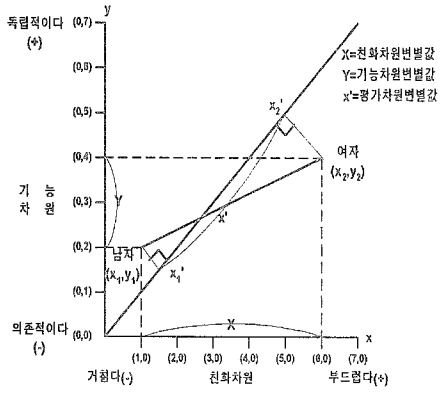


그림 2. 기능과 친화준거차원변별값과 평가차원변별값

준거차원변별값 : 피험자들이 남여집단구성원들에 대한 인상을 어떤 준거에서 판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상판단점수를 기초로 기능성 및 친화성 차원에서 변별값을 산출하였다. 그림 2 에서 Y는 남자집단 구성원들과 여자집단 구성원들의 인상이 남성의 대표적 특성인 기능성 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X는 여성의 대표적 특성인 친화성 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가치차원에서의 변별값이 클수록 각 가치차원에 입각해서 남자 혹은 여자집단구성원의 인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준거가치변별값의 계산은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방법을 따랐다.

준거가치다원성 : 피험자들이 남자와 여자집단 구성원에 대한 인상을 한쪽 준거차원(단일준거가치)만을 사용해서 변별하는지 또는 양쪽 준거차원(다원준거가치)를 동시에 사용해서 변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준거가치다원성을 분석하였다. 이 다원성 값은 준거차원변별값에서 기능성 차원의 변별값(y)과 친화성 차원의 변별값(x)를 각각 Z점수로 환척하여 이 두 값을 교적한 점수(ZxZy)이다. 이 값이 클수록 남자와 여자를 다원준거가치에서 변별하는 것이며, 이 값이 적을수록 단일준거가치에서 변별하는 것이다.

평가값 : 집단성원들에 대한 인상을 좋다-싫다차원에서 판단하는 정도 즉, 평가차원에서의 판단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차원변별값(x′)을 산출하였다. 그림 1에서 기능차원과 친화차원의 원점을 통과하는 대각선은 평가차원을 나타낸다(그림 2). 남자와 여자를 이 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평가값)은 남자와 여자의 두 태도대상이 평가차원(좋다-싫다)에서 판단되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거리가 크면 클수록 남자와 여자를 평가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실험해명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실험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본래의 실험목적과 독립변인 처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위장했던 실험절차들을 설명, 사과하였다.

결 과

1. 독립변인 처치 검증

실험의 최종단계에서 피험자들은 사후 질문지를 통해 8명이 상호작용하던 과정에서 어떤 집단표상(단일집단, 두집단, 개인들의 집합)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집단과 개인, 단일집단에 대한 집단표상을 각각 측정하였다. 각 처치조건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처치조건별 구성원들의 집단표상 확신도(SD)

처치조건\표상	두집단	개 인	단일집단
범주화(n=56)	5.46(1.41)	2.77(1.57)	2.95(1.57)
탈범주(n=56)	4.34(1.79)	4.18(1.81)	2.89(1.42)
재범주(n=56)	4.11(1.49)	3.89(1.75)	4.23(1.48)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구성원들이 두 집단으로 표상하는 정도는 범주화 처치조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2, 158) = 12.00$, $p< .01$], 개인으로 표상하는 정도는 개인화 처치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F(2, 158)= 12.09$, $p< .01$]. 그리고 단일집단으로 표상하는 정도는 단일화 처치조건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F(2, 158) = 10.58$, $p< .001$]. 따라서 본 실험에서 의도했던 독립변인 처치가 효과적이었음이 밝혀졌다.

2. 태도변화

직업역할분배문제에 대한 신념에서의 태도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업역할분배의 공정성 여부'와 직업역할분배에 대한 신념들중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가사노동분배'문제에 대해 태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범주화가 재,탈범주화조건에 비해 태도변화가 더 크게 적게 나타나거나 기존의 태도를 더욱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신념 문항에서 실험처치전,후의 태도를 측정한 후, 처치조건별 태도의 평균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처치집단별 직업역할분배의 공정성지각와 가사노동 역할분배에 관한 사전,사후 태도변화량(SD)

		직업역할분배의 공정성		
		사 전	사 후	태도변화량
범주화	남(n=27)	* 2.89(1.29)	3.64(1.22)	+.75(1.75)
	여(n=28)	4.28(1.35)	2.39(1.19)	-1.89(1.66)
	전체(n=55)	3.59(1.49)	4.02(1.35)	- .57(1.25)
탈범주	남(n=26)	3.29(1.12)	3.04(.79)	- .25(1.58)
	여(n=28)	4.82(1.19)	2.33(.78)	-2.48(1.47)
	전체(n=54)	4.05(1.38)	2.69(.86)	-1.35(1.89)
재범주	남(n=25)	3.68(1.15)	2.88(.69)	- .85(1.54)
	여(n=25)	4.51(1.26)	2.44(.75)	-2.17(1.58)
	전체(n=50)	3.94(1.23)	2.66(.75)	-1.29(1.61)

* 값이 클수록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임

		가사노동역할분배		
		사 전	사 후	태도변화량
범주화	남(n=27)	**3.18(1.68)	5.03(1.64)	+1.86(1.65)
	여(n=28)	3.96(1.32)	3.00(1.54)	- .96(1.04)
	전체(n=55)	3.57(1.55)	4.01(1.88)	+ .45(1.80)
탈범주	남(n=26)	3.39(1.73)	4.14(1.43)	+ .75(1.08)
	여(n=28)	4.79(.97)	3.37(2.06)	-1.40(1.31)
	전체(n=54)	4.09(1.55)	3.76(1.79)	- .39(1.43)
재범주	남(n=25)	3.86(1.01)	4.15(1.79)	+ .33(1.08)
	여(n=25)	3.86(1.01)	3.25(1.81)	- .63(1.31)
	전체(n=50)	3.96(.99)	3.70(1.83)	- .29(1.22)

** 값이 클수록 전통적인 방식의 가사노동분배가 옳다고 지각하는 것임.

표 3의 '직업역할분배의 공정성지각'에서 사전/사후간의 전체 태도변화량을 살펴보면 범주화보다 재,탈범주화에서 더 크게 태도를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범주=-.57, 탈범주=-1.35, 재범주=-1.29). 집단과 성별을 집단간 변인으로 하고 사전과 사후를 개인내 변인으로 한 3원변량분석결과에서 집단과 사전/사후의 이원상호작용[$F(2, 158) = 4.18$, $p< .02$]이 유의하여 이를 지지하였다. 이는 범주화보다 재,탈범주화조건에서 역할분배가 더 불공정하다고 보는 태도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태도변화에서 남여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범주화에서는 남자는 직업역할분배가 사후에 더 공정하다고 보는 쪽으로 태도변화가 일어난 반면에 여자는 더 불공정하다고 보는 쪽으로 태도변화가 일어났다. 즉, 범주화에서는 남여가 서로 자신의 태도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태도의 극단화가 일어난 반면에 재,탈범화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3원변량분석결과에서 집단x성별x사전/사후의 3원상호작용이 유의하여[$F(2, 158)= 4.48$, $p< .01$] 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 결과는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직업역할분배의 공정성에 관한 신념이 범주화에서는 남여가 서로 자신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재,탈범주화에서는 남여 모두 더욱 불공정하다고 보는 방향으로 태도변화가 일어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표 3의 '가사노동분배시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성역할분배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사전과 사후를 비교해 볼 때 남자들은 남여의 동등한 권리가 더욱 보장된다고 보는 반면에 여자들을 더욱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결과에서 성별x사전/사후의 2원상호작용이 유의하여 [$F(2, 158 = 31.20$, $p< .01$] 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런 남여의 태도변화에서의 차이가 재,탈범주화에서는 범주화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결과에서 3원상호작용이 유의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F(2, 158) = 2.34$, $p< .09$] 이를 지지하였다. 이 결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가사노동역할분배가 남자들은 더 공정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여자들은 더 불공정한 것으로 태도를 옹호하는 경향이 범주화가 재,탈범주화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3. 성고정관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고정관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고정관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범주화에 비해 재,탈범주화조건에서는 성고정관념이 감소될 것이다. 표 3은 처치조건별 성고정관념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표 3. 처치조건별 성고정관념의 평균(SD)

	남자는		여자는		
처치조건\성별	기능성	친화성	기능성	친화성	성고정관념
범주화					
남(n=27)	5.90(.68)	3.36(1.07)	3.01(1.03)	5.66(.94)	5.22(2.28)
여(n=28)	5.34(.77)	2.87(.97)	4.05(.89)	6.00(.82)	4.41(1.87)
전체(n=55)	5.61(.78)	3.11(1.04)	3.53(1.08)	5.94(.89)	4.81(1.11)
탈범주					
남(n=26)	5.45(.78)	3.54(.96)	3.42(.76)	5.59(.69)	4.09(1.64)
여(n=28)	5.39(.90)	3.17(.78)	3.95(1.01)	5.64(.86)	3.89(2.46)
전체(n=54)	5.42(.83)	3.36(.88)	3.69(.93)	5.61(.78)	3.99(2.07)
재범주					
남(n=25)	5.25(.70)	3.36(.87)	3.35(1.06)	5.84(.81)	4.96(2.73)
여(n=25)	5.17(.88)	3.37(.70)	3.95(.89)	5.61(.77)	3.51(1.78)
전체(n=50)	5.13(.85)	3.38(.87)	3.65(1.01)	5.73(.79)	4.26(2.45)

표 3에서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남자를 더욱 기능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여자들을 더 친화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범주화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성판단 평균 ; 범주=5.90, 탈범주=5.45, 재범주=5.25, 친화성판단 평균; 범주=6.00, 탈범주=5.65, 재범주=5.61). 이를 검증하기 위해 처치집단x성별x대상x기능/친화의 4원변량분석결과에서 집단x성별x기능/친화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여(F(1,162)=4.64, P<.05) 이런 경향을 통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는 남자는 내집단인 남자를 더욱 기능적으로 여자는 내집단인 여자를 더욱 친화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내집단 편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집단편애현상이 범주화에 비해 재,탈범주화에서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남자를 친화적이라고 보기 보다는 기능적이라고 보고 대상 여자늘 기능적이기 보다 친화적이라고 보는 정도가 범주화에 비해 재,탈범주화조건에서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기능성판단 평균 ; 범주=5.61, 탈범주=5.45, 재범주=5.13, 친화성판단 평균; 범주=5.94, 탈범주=5.61, 재범주=5.73). 4원변량분석결과에서 집단x대상x기능/친화의 3원상호작용이 유의하여($F(1,162)=4.64, p<.05$) 이런 경향를 통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는 남자를 기능적으로 보고 여자를 친화적으로 보는 성고정관념이 나타난 것이며 이런 경향이 범주화에 비해 재, 탈범주화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정을 지지하였다.

4. 준거가치측정

남여집단구성원에 대한 인상을 평가할 때 어떤 준거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표 4의 인상평가점수를 기초로 준거차원변별값을 산출하였다. 준거차원변별값은 남자와 여자집단구성원에 대한 인상이 기능과 친화 중 어떤 준거가치차원에 입각해서 판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이다. 표 4는 준거차원변별값을 산출하기 위해 제시된 처치조건별 기능과 친화차원에서의 인상평가점수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인상평가점수에 기초해 처치조건별 준거차원변별값의 평균은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범주화조건에서는 남,여집단구성원들에 대한 인상평가시 기능 혹은 친화중 특정한 단일준거가치만을 준거로 인상을 판단하는 반면에 재탈범주화조건에서는 기능과 친화 두 준거가치를 모두 판단의 준거로 인상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실험조건별 기능과 친화차원에서의 인상평가의 평균(SD)

		남자대상인물		여자대상인물	
처치조건\성별		기능성	친화성	기능성	친화성
범주화	남(n=27)	5.24(.66)	4.90(.67)	4.74(.70)	4.86(.67)
	여(n=28)	4.74(.58)	4.16(.66)	5.15(.52)	5.26(.82)
	전체(n=55)	4.99(.62)	4.53(.62)	4.94(.61)	5.06(.74)
개인화	남(n=26)	5.01(.53)	4.46(.37)	4.62(.43)	4.80(.56)
	여(n=28)	4.71(.67)	4.23(.37)	4.94(.74)	4.70(.74)
	전체(n=54)	4.86(.60)	4.34(.37)	4.78(.53)	4.75(.65)
단일화	남(n=25)	5.27(.68)	4.76(.71)	4.53(.69)	4.92(.68)
	여(n=25)	4.95(.58)	4.21(.41)	4.57(.58)	4.52(.44)
	전체(n=50)	5.11(.58)	4.49(.51)	4.55(.63)	4.72(.56)

표 5. 처치조건별 기능과 친화 준거가치변별값(SD)

처치조건 \ 성별		기능준거가치변별값	친화준거가치변별값
범주화	남(n=27)	.57(1.03)	-.07(.92)
	여(n=28)	-.42(.72)	1.09(.96)
	전체(n=55)	.08(.82)	.51(.95)
개인화	남(n=26)	.35(.75)	.37(.76)
	여(n=28)	-.23(.98)	.46(1.06)
	전체(n=55)	06(.86)	.41(.86)
단일화	남(n=25)	.74(.86)	.16(.80)
	여(n=25)	.34(.84)	.32(.81)
	전체(n=55)	.54(.85)	.24(.80)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는 기능차원에서 남여집단구성원을 변별하는 반면에 여자는 친화차원에서 변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능차원에서의 변별값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으며, 친화차원에서의 변별값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처치조건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준거차원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는 3원변량분석에서 성별x준거차원의 2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F(1, 158) = 66.77$, $p < .01$]). 이 결과는 남여성에 따라 준거가치가 서로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분석에서 처치조건x성별x준거차원의 3원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F(2, 158) = 13.19$, $p<.01$]). 이 결과는 범주화조건에서는 특정준거가치에 의존하는 정도가 재,탈범주화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범주화조건에서는 기능 혹은 친화 단일준거가치에 입각해서 남여의 인상을 판단하는 반면에 재,탈범주화조건에서는 기능과 친화 두 준거가치 즉, 다원준거가치에 입각해서 판단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5. 평가값

남여구성원들에 대한 인상을 좋다-싫다차원에서 판단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범주화조건에 비해 재,탈범주화에서는 좋다-싫다차원에서 판단하는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치조건별 평가값의 평균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처치조건별 평가값의 평균(SD)

처치조건\성별		평가값
범주화	남(n=27)	.78(.49)
	여(n=28)	1.14(.62)
	전체(n=55)	.96(.58)
탈범주	남(n=26)	.86(.53)
	여(n=28)	.56(.43)
	전체(n=54)	.71(.50)
재범주	남(n=25)	.70(.56)
	여(n=25)	.80(.57)
	전체(n=50)	.75(.56)

표 6에서 보면 재탈범주화에 비해 범주화조건에서 평가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범주화 평균 .96, 탈범주화 평균 .71, 재범주화 평균 .75).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치조건별 주효과가 유의하여($F(2, 158)=3.34$, $P<.05$) 이를 지지하였다. 이 결과는 남여성원들에 대한 인상평가에서 좋다-나쁘다의 차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재,탈범주화에 비해 범주화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집단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

되는 것으로 범주화조건에서는 더 감정적으로 내외집단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성고정관념과 준거가치, 평가값과의 관계

성고정관념과 준거가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고정관념과 기능과 친화준거차원변별값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남여 성고정관념과 준거가치와의 관계

	성고정관념	남고정	여고정	기능준거	친화준거	평가값
전체성고정관념	--	.87**	.86**	.16	.14	.16
남자고정관념		---	.50**	.20**	-.03	.17
여자고정관념			---	.09	.27**	.10
기능준거가치				---	-.10	.28**
친화준거가치					---	.08
						--

** p<.01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에 대한 성고정관념은 기능준거가치와 정적인 상관(r=.20)이 있는 반면에 여자에 대한 성고정관념은 친화준거가치와 정적인 상관(r=.2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능가치에 준거할수록 남자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증가하는 반면에 친화가치에 준거할수록 여자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성고정관념연구들에서 보여지는 남자는 기능적인 특성을, 여자는 친화적인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또한 평가값이 기능준거가치와 정적인 상관(r=.2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친화준거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평가차원에서의 평가는 친화준거와는 상관이 없고 단지 기능준거가치를 가질수록 평가차원에서의 평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남여구성원을 인상평가할 때 좋다-싫다로 평가하는 기준이 기능준거와 밀접히 관련됨을 의미한다. 오늘날, 남여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그 대상이 좋다-나쁘다고 평가하는 판단기준이 단지 기능준거가치(주장적이다, 적극적이다)와 밀접히 관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준거가치다원화와 성고정관념

범주화조건에 비해 재,탈범주화조건이 성고정관념이 감소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탈범주화처치가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 이유를 준거가치의 다원화에서 비롯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 범주화조건에 비해 재범주화조건에서는 8명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며, 탈범주화조건에서는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7명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주화조건에 비해 재,탈범주화조건에서는 준거가치가 다원화되어야 한다. 실제 표 5에서 범주화에 비해 재,탈범주화조건에서는 준거가치가 다원화됨을 보여주었다.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표 7에서는 처치조건별 준거가치다원화 정도를 교차분할표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준거집단의 구분은 표 5에서 나타난 기능과 친화준거차원 변별값을 각각 Z점수로 환척한 후, 이를 교적하여 구하였다. 이 값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점

수가 큰 집단을 다원준거집단으로, 점수가 작은 집단을 단일준거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8는 처치조건별로 다원과 단일준거집단에 해당되는 사례수와 백분률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8. 처치조건별 다원과 단일준거집단의 교차분할표(%)

처 치 조 건	다원준거집단	단일준거집단
범 주 화(n=55)	19(34.5)	36(65.5)
탈범주화(n=54)	32(31.5)	22(40.7)
재범주화(n=50)	32(34.0)	18(36.0)
전 체 (n=159)	83(52.2)	76(47.8)

표8에서 살펴보면 범주화조건에서는 다원준거를 갖는 사람보다 단일준거를 갖는 사람의 수가 많은 반면에 탈범주화와 재범주화조건에서는 다원준거를 갖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조건에 따라 다원과 단일준거집단의 차이를 X^2검증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10.74, *df*=2, p<.01). 이 결과는 범주화조건보다 재,탈범주화조건에서 준거가치다원화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재,탈범주화처치가 준거가치를 다원화시킬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준거가치다원화정도에 따라 성고정관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9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은 준거가치가 다원화된 집단이 단일화된 집단에 비해 성고정관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표 9은 표 2의 남여에 대한 성고정관념점수를 토대로 제시한 것이다. 표 2에서 남자에 대해 여자보다 기능적이라고 평가한 점수를 남자에 대한 성고정관념점수로 하고, 여자를 남자보다 친화적이라고 평가한 점수를 여자에 대한 성고정관념점수로 하였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고정관념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성고정관념으로 삼았다. 표 9은 준거가치 다원과 단일집단에 따라 성고정관념의 평균을 을 제시한 것이다

표 9. 준거가치다원화 집단에 따른 성고정관념의 평균(SD)

집단\성별	남자고정관념	여자고정관념	성고정관념
다원준거	남(n=40) 5.65(.82)	5.79(.82)	5.73(.75)
	여(n=34) 4.90(.81)	5.36(.79)	5.13(.69)
	전체(n=74) 5.30(.89)	5.59(.83)	5.45(.77)
단일준거	남(n=39) 5.91(.66)	5.57(.81)	5.69(.65)
	여(n=44) 5.58(.96)	6.03(.73)	5.81(.60)
	전체(n=83) 5.78(.72)	5.82(.79)	5.86(.62)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고정관념에 있어서 다원준거집단이 단일준거집단에 비해 고정관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원준거집단 평균=5.45, 단일준거집단 평균=5.76)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성고정관념에 대한 집단별x성별을 집단간 변인으로 하는 2원변량분석 결과에서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여(F(1, 157)=9.16, P<.01) 통계적으로 이를 지지하였다. 이 결과는 범주화조건에 비해 재,탈범주화조건에서 준거가치가 다원화되며 준거가치의 다원화로 인해 성고정관념이 감소될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 한 방안으로 재,탈범주화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가정은 범주화에 비해 재탈범주화처치는 판단준거의 다원화 즉, 조망확대를 일으키기 때문에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들을 살펴보면 첫째, 범주화에 비해 재,탈범주화에서는 남여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역할분배에 관한 신념에 있어서 재,탈범주화가 범주화에 비해 태도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거나 태도의 극단화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직업역할분배에서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재,탈범주화조건이 범주화에 비해 태도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사노동분배가 남여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였을 때 범주화조건이 재,탈범주화에 비해 더 자신의 주장을 더 옹호하는 태도극단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고정관념과 밀접히 관련된 직업역할분배 문제에 있어서 재,탈범주화에 비해 범주화가 성고정관념적 신념을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주화에서 성고정관념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과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째, 범주화에 비해 재,탈범주화에서는 판단의 준거가 다원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주화에서는 남여집단이 추구하는 기능과 친화가치중 한 준거만을 더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재,탈범주화에서는 기능과 친화 두개의 가치를 모두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재,탈범주화처치가 범주화에 비해 판단준거가 다원화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볼 때 범주화가 재,탈범주화에 비해 준거가치의 다원화가 일어난 반면에 범주화에서는 특정준거가치에 더 의존한 판단이 일어났다. 왜 사람들은 집단으로 범주화되면 특정준거가치만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가? 사회적 정체이론에 따르면(Tajfel & Turner,1985) 개인의 정체는 크게 사회적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동일시(예, 나는 학생이다. 나는 여자다)하였을 때 갖는 사회적 정체(social identity)할 때와 개인의 특성으로서 자신을 규정할 때의 개인적 정체로 나눌 수 있다. Tajfel과 Turner(1985)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을 사회적 정체로 규정하는 경우는 특히 집단범주가 특출할 경우에 그러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적군과 아군으로 개인이 만나는 경우와 남자와 여자로 만나는 경우에는 사회적 정체로 개인들이 만나는 경우이다. 이렇게 사회적 정체를 갖게 되면 그 집단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에 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곧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된다. 예를 들어, 남자는 남자집단이 추구하는 기능가치가, 여자는 여자집단이 추구하는 친화가치가 곧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범주화전략은 성범주를 특출하게 조작한 경우이다. 반대로 재,탈범주화에서는 성범주를 재설정 혹은 깨므로서 성범주를 특출하지 않게 한 조건이다. 따라서 범주화는 집단범주가 특출하므로 사회적 정체로서(나는 남자다 혹은 나는 여자다)자신을 동일시하는 조건이다. 반면에 재범주화조건에서는 남여가 하나의 집단이 되어 공동과제를 해야 하거나, 탈범주화에서는 남여의 집단성원들을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이다. 따라서 재,탈범주화조건에서는 개인적 정체로서 자신을 동

일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범주화조건에서는 사회적 정체를 갖기 때문에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곧 개인의 가치가 된다. 즉, 남자는 기능가치가, 여자는 친화가치가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재,탈범주화에서는 개인적 정체를 갖기 때문에 내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곧 자신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범주화에서는 남자는 기능을, 여자는 친화가치를 판단의 준거로 남여를 판단하는 조망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재,탈범주화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기능과 친화 두 준거가치를 판단의 준거로 남여를 판단하는 조망확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은 성고정관념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연구해 왔다.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 방안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중에 하나는 집단간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Allport, 1954). 접촉가설에 따르면 갈등상대가 되는 두 집단간의 상호접촉이 있을 때, 즉, 집단간 상호의존관계가 있는 상호접촉 혹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제수행이 있을 때 고정관념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Aronson & Osherow (1980)은 접촉이 집단간 호감을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많은 연구들에서 접촉가설의 적용 영역에 한계를 지적하여 왔다. 예를 들어 흑인과 백인이 갈등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접촉이 오히려 고정관념을 증대시킴을 보고하여 왔다(Scofield,1978).

최근 Brewer(1988)는 이중과정모델에서 인상형성과정에서 범주주도적 처리 즉, 고정관념적 처리가 개인주도적 처리 즉, 탈고정관념적 처리에 비해 항상 선행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범주주도적 처리에서 개인주도적 처리가 타일어나기 위해서는 개별화(deindividuation)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개별화처리는 자아관여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인물이거나, 자기와 유사한 내집단 성원들이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목표가 상호의존적일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rewer의 이론은 자아관여수준이 고정관념적 처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는 하나 자아관여수준에 대해 명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또한 고정관념적 처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지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고정을 통해 고정관념이 감소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한가지 설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외집단성원들을 판단할 때 판단준거의 다원화 즉, 조망의 확대가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수원과 이혜경(1991), 이수원(1995)은 고정관념과 같이 타인을 도식적으로 처리하는 지각오류는 특정한 역할범주에 맥락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과정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이런 탈맥락화과정은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는 역할수용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주장은 실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이해경과 이수원, 1994; 서미와 이수원, 1995).

실제 본 연구에서 조작한 재,탈범주화처치는 사실 남여의 성역할범주화 후에 상위의 공동목

표를 수행하게 하거나 개별화시킴으로서 다른 5명의 의견 혹은 입장을 수용하게 한 처치이다. 따라서 범주화는 남여의 성역할에 맥락화되도록 한 조건인 반면에 재,탈범주화조작은 성역할범주에서 탈맥락화되도록 한 조건이다. 따라서 성역할에 탈맥락화되게 하므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조망수용이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조망수용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특성판단에서 고정관념이 감소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가정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많은 집단간 갈등이 있다. 남여간의 갈등, 흑백간의 갈등, 소수와 다수민족간의 갈등, 우리나라에서는 영호남인의 지역감정 등 이런 수많은 갈등속에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고정관념의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망의 확대가 고정관념이나 고정관념과 관련된 신념의 변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정관념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많은 제한점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성고정관념의 증감을 확인하기 위해 단지 실험실에서 범주화와 재,탈범주화를 조작한 후, 본 연구의 가정을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외적타당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중에 하나인 성고정관념을 주제로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정이 특정 인종들 간에서 나타나는 고정관념이나 다른 형태의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지는 알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다른 유형의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가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적용영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김태준과 이수원 (1992).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각에서 입장개입의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 6권 2호, 29-42.

이수원 (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13권(1), 1-38.

이수원과 김태준 (1990). 사회적 역할이 사회적 사건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5권 1호, 10-23.

이수원과 박영석 (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연구, 4 권(1), 155-182.

이수원과 이해경 (1992). 역할과 개인의 분리 : 역할수용의 한 기제. 대학생활 연구, 9호, 81-109. 한양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이해경과 이수원 (1994). 사회적 범주화, 가치선호 및 내집단 편애.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 6권 2호, 29-42.

정진경 (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 여성학, 3권, 132-160.

조순과 조은경(1994).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의 실태와 극복방안-공공부분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국여성회의 발표논문.

Allpor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G oardon City, NY:Doubleday Anchor

Asch, S. E. (1955).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Scientific American, *19,* 31-35.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rewer, M, B. (1988).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In T. S. Srull & R. S. Wyer,Jr.(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Vol. 1: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pp.1-36). Hillsdale, NJ:Erlbaum.

Eagly, A. H., & Mladinic, A. (1994). Gender stereotypes and attitudes toward woman and 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543-558.

Fiske, S. T., & Neuberg, S. L. (1990). A continuum for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processes to individuating processes:Influences of information and motivation on attention and interpretation. In M. Zanna(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3,* pp.1-74). Orlando, FL:Academic Press.

Gaertner, S. L., & Mann, J. Murrell, A., & Dovidio, J. F.(1989).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Brewer, M. B. & Miller, N. (1984). Beyond the contact hypothesis: Theoretical perspectives on desegregation. In N. Miller & M.B. Brewer(Eds.), Group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pp 281-302). Orlando, FL:Academic Press.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s: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Gaertner, S. L., Mann, J., Murrell, A., & Dovidio, J. F. (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Goldberg, P. (1968). Are Women prejudiced against women? Transaction, *5,* 28-30.

Greenglass, E. R. (1982). A World of Difference: Gender Roles in Perspective. Toronto: Wiley.

Hamilton, D. L. & Gillford, R. K. (1967). Illusory correlation in interpersonnal perception: A cognitive basis of stereotypical judge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392-407.

Hamilton, D. L., & Trolier, T. K. (1986).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An overview of the cognitive approach. In J.Dovidio & S.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New York: Academic Press.

Hyde, J. S. (1985). Half the Human

Experence: The Psychology of Women (#rd edn). Lexington, MA:Health.

Judd, C. M., & Park, B.(1988). Out-group homogeneity:Judgements of variability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1-13.

Linville, P. W., Salovey, P., & Fisher, G. W. (1986). Stereotyping and perceived distributions of social characteristic:An application to ingroup-outgroup perception. In J. F. Dovidio & S. L.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 127-163). Orlando, FL: Academic Press.

Matlin, M. W. (1987). The Psychology of Women. New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Tajfal, H. (1969). Cognitive aspects of Prejudice. Journal of Social Issues, 25, 79-97.

Tajfal, H. & Turner, j. (1979). An inter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7). Monterey, CA: Brooks/Cole.

Tajfal, H. & Turner, j. (1985).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G.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7-27). Chicago, IL:Nelson-Hall.

Secord, P. E. (1959). Stereotyping and favorableness in the perception of Negro faces. Journal of Abnomal and Social Psychology, 59, 309-321.

Shinar, E. H. (1975). Sexsual stereotypes of occup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 99-111.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l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234-244.

Stanger, C., Sullivan, L.A., & Ford, T. E.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s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 359-380.

Williams, J. H. (1987). Psychology of Women.: Behavior in a biosocial context(3rd edn). New York:Norton.